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9 ~ 3/25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담마빠다-빠알리어 직역 법구경	일아	불광출판사
2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7	능가경 강의	남희근	부기
3	삶은 환타지다	월호	민족사	8	알고 보면 관점은	마가	불광출판사
4	공-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홍타	민족사	9	일체경계 본래일심	정독	비움과소통
5	비율수록 가득하네	정목	샘앤파커스	10	너는 누구냐	김경웅	수하인터세원



## “행복은 소유 아닌 교감 통해 얻어져”



**아름다운 선물**  
글·그림 수안 스님  
문이당 펴냄  
1만 4500원



글과 그림만큼 수안 스님의 미소도 따사롭다.

선화(禪畵)로 유명한 수안 스님. 지난해 9월에는 러시아 정부 초청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화 초대전을 열었다. 프랑스, 모나코, 독일 등에 이어 해외에서 다섯번째 열린 초대전이였다. 2개월동안 러시아 극동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수안 스님의 최근작 60여점이 전시됐다.

이 당시 수안 스님은 “해의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카레이스키(재소 한국인 동포)의 슬픔이 서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시회를 열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우리 고유의 종교와 문화가 담긴 작품을 통해 진짜 한류의 본모습을 선보이고 양국간 우호관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 전시를 졸탁동시(卒塔同時)가 빛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졸탁동시는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새가 알에서 부화할 때 새끼가 안에서 툭툭 째는 행위가 어미가 밖에서 툭툭 째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비로소 두꺼운 알이 깨진다는 말이다. 이런 뜻 외에도 졸탁동시는 불가에서 깨달음의 화두로 사용되는 1700공안중 하나이다. 깨달음에 목말라 정진하고 정진한 제자에게 결정적인 순간을 맞춰 스승이 한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이다. 수안 스님은 바로 정치 문화적 변화에 의한 우리 쪽의 노력이 밖에서 알을 째는 것이라면, 현지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이 그 나라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입지를 든든히 하는 것은 안에서 알을 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도사 문수원서 선 수행과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수안 스님의 그림 산문집 《아름다운 선물》이 나왔다. 스님은 출가 이후 60여 년간 다져 온 수행 세계와 시 서 화 각에 몰입해 온 예술 인생을 이 산문집을 통해 글과 그림으로 진솔하게 보여 준다. 또한 출가 전후의 성장 과정과 수좌로 정진하던 고행기, 노숙자부터 파리의 노부인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나눈 감동적 일화들을 소개한다.

스님의 그림에는 좋은 글귀들이 들어가는데 하나같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경구들이다. “당신이 있기에 참 행복합니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등등. 듣기만 해도 절로 행복해 지는 말들이다. 수안 스님은 이 책에서 “행복은 교감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소유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로의 감응이 교차할 때 그동안 살면서 쌓인 애환도 눈물도 녹으며, 그때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샘물”이라고 말

**선서화가 수안 스님 글 그림 60여편 담아 수행시절·스승 석정스님과 일화 등 소개**  
**짧고 감칠맛 나는 어휘 잔잔한 감동 전해**

우리나라에서 시서화각에 능한 종합 예술가는 흔치 않다. 거기에 수행력까지 겸비한 선승이 바로 수안 스님이다. 월간 《보공》과 《삶과 생명나누기》에 매월 시를 쓰고, 표지화를 그리며 삶의 현장서 만난



수안 스님의 선서화는 따뜻한 울림을 전해준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안 스님의 예술적 소재는 세 가지가 맞물려 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 수행, 자연에 대한 관조, 사회에 대한 연민이다. 스님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학, 소나무, 꽃 등의 자연 세계,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 탑, 동자승, 우담바라 등의 구도적 세계, 또 사람과 집, 차 등 생활에 관한 것들이다. 간결하면서도 강렬하며, 때로는 희화적으로 미소 짓게 하고, 정공법으로 가슴을 꿰 울리기도 한다. 요즘처럼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위안이 되고 희망의 에너지가 샘솟는 촉매제는 많지 않다. 이번에 나온 스님의 그림 산문집은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겨가는 이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 내용을 살펴보면 스님이 출가한 이후 60여 년간 수좌로 정진하던 고행기와, 그림과 전각을 시작하게 된 과정, 수많은 해외 전시회를 통해 그곳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에는 66편의 글과 68편의 그림이 실렸다. 이 책은 일상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수안 스님의 따뜻한 마음과 세상살이에 지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위무가 담겨 있다. 짧고 간결한 문장들과 감칠맛 나는 어휘들이 수안 스님이 그린 선화와 함께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부처님의 마음을 그림으로 전하려는 수안 스님은, 수행자로 살며 겪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어린아이부터 파리의 노부인, 스님의 어머니까지, 모두에게 받았던 고마운 마음을 그림과 글로 엮었다.

책에서는 특히 과자와 홍시 얻어먹으려 절에 드나들다 그냥 놀러 앉아 출가하게 된 이야기부터 스승인 중요무형문화재 불화장 기능 보유자인 석정 스님(1928~2012)과 함께 맛있는 국수집을 찾아 다니던 이야기, 안겨준 무작정 선원서 도망쳐 무작정 여행을 떠난 일화 등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스님은 약필과 인연이 깊다. 그래서 수안 스님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약필(筆畵)이다. 약필이란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주먹으로 붓의 상단을 움켜쥐고 쓰는 것을 말한다.

스님의 한 획, 찰나의 획에는 엄청난 공력이 들어 있다. 이는 동양화 선묘화를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기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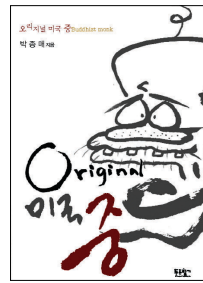
오랜 세월의 수련과 정진 수행이 그 기를 만들어 낸 것이며, 전각가로서 다져진 공력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수안 스님은 우리 역사 속의 문인들이 정치, 경제, 예술, 문학을 두루 꿰어 현실 사회에 반영했듯이, 예술 장르를 넘어 일상의 세계를 연계하고 통찰해 한 줄로 꿰어 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의 서화집이라기 보다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선명상집 성격이 짙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현대에 맞는 새로운 종교생활 길잡이 필요”

**오리지널 미국중**

**종매 스님 지음 | 푸른향기 펴냄 | 1만2천원**



이 책은 《현대 한영 불교용 어사전》을 집필한 미국 로올라메리마운트대학 종교학과 교수 종매 스님이 쓴 좌충우돌 해외포교 이야기다.

미국의 한국 선불교 선지자인 송산 스님과 도안 스님을 가까이 보필하며 해외 포교의 길을 이어받은 종매 스님. 스님은 불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오스트리아서 처음으로 불교대학을 설립한 이후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50여 국가를 돌며 불교 포교에 앞장서 왔다.

이 책에는 오랜 외국생활과 해외 불제자들과의 인연, 승려로서 경험한 웃지 못할 해프닝, 불사를 하기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들던 사연, LA폭동이 일어났을 때 절을 지켜준 흑인 불자들, 서양의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열린 마음으로 불법을 전하는 사연 등 솔직담백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겁도 났지만 그저 머리 깎고 회색 승복을 입었다는 용기 하나로 저자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다. 아마 불보살님의 엄청난 가르침이 있었으리라 본다.

송산 스님과 도안 스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깊이 관찰하며 오리지널(Original) 미국 중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저자는 회고 한다. 엉성한 영어 몇 마디를 겁 없이 내걸기며 좌충우돌하기 십수 년이다.

저자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였지만 몸을 추스르기 위해 뽕안 국물과 먹음직스러운 살코기가 동등 때 있는 설명탕을 앞에 놓고 솔직히 먹고 싶었다는 인간적인 속내도 들어낸다.

저자는 또한 이 책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력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이 어떤 유형의 믿음이라도 인간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스스로 복이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믿음은 종교로서 완벽한 것이다. 인간에게 너무 난해한 교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가장 쉬운 신앙행위로써 인간을 이끌어야 하는 보편성도 있어야 한다.”고 평소의 종교관을 설명한다.

저자는 해외 포교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한다. 미국과 달리 유럽불교는 신앙이 아닌 철학적이고 교학적인 관점에서 불교가 시작했기 때문에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그들을 불자로 만들기에 엄청난게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유럽에서 불제자의(특히 승려나 전법사) 양성이 절대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유럽의 한인불자 수는 아주 소수라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으로 나가 포교하려는 승려나 전법사는 스스로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종단차원에서 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불교 행사 때 빠짐없이 참석해 스님들 뒷바라지까지 다 해주는 일본인 목사님을 보면서 범종교적인 차원에서 불교의 발전을 모색하고, 종교는 인간들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편 가르고 갈등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그래서 불교의 퓨전화를 조심스럽게 떠올린다.

실제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승려생활하는 서양의 수행자들을 보며 ‘수행과 세속적인 삶이 병행되는 삶이 복미나 유럽에서 크게 유행될 것’이라 예견하며 미래의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종매 스님의 좌충우돌 해외 포교 체험기**

**서구불교인 교학적 관심 많아 포교 힘들어**

**복미나 유럽은 지금 퓨전식 종교 활발**

각각 직업을 갖고 사찰이나 선원을 운영하는, 즉 수행과 세속적 삶이 병행되는 것으로, 이런 생산적인 삶이 앞으로 복미나 유럽에서 크게 유행될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경험으로 봐서 세속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수행하며 살아가는 신세대 성직자는 오히려 나태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복미나 유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신세대 퓨전식 종교 활동이 활발하다고 소개한다. 가톨릭 신부나 수사들이 성당이나 수도원에서 불교식 참선을 하고, 불자들은 성당을 빌려 법회를 보며 마리아를 관세음보살로 해서 깊은 자비심을 고양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미래의 종교도 퓨전화한다면 어떨까 질문을 던진다. 불교교리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성경말씀으로 해탈의 경지를 맞보며, 모하메드의 사랑으로 화엄경을 푸는 퓨전식 종교 말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21세기 첨단 문명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에 걸맞게 첨단 종교생활과 새로운 신앙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개종(religious convert)이란 말보다 복수신앙(dualistic faith)이라는 신종어가 많이 쓰일 것 같다는게 미국 오리지널 스님의 예견이다.

김주일 기자

불교에 관심있는 외국인을 위한 영문 한국불교 안내서!

##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

영어에 익숙한 젊은이들을 위한 한국불교 백과사전!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표제어와 알기 쉬운 설명, 이해를 돕는 다양한 사진은 한국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해원·Mason/국판양장컬러/656쪽/값 35,000원

**지금 나의 삶이 영원을 노래할 수 있다면**

**법화행자로 살면 삶이 행복하다!**

경전 중의 제일이라는 『법화경』을 진실되게 공부하고, 바른 믿음과 실천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

쉽고 평이한 언어로 풀어가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는 스님만의 화법으로 불자들을 일깨워 참된 불교 수행의 길로 안내!

“일심으로 부처님에게 향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믿고 의지하고 행하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면, 그 속에서 불법의 진리가 생활 속에 들어와서 상락아정의 생활이 된다.”

일우 지음/신국판/336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books